

청소년 동아리활동경험이 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

송수지** · 김정민*** · 남궁지영****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개념 성장에 동아리활동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조사 1~6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2005년부터 전국 150개 중학교의 6908명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의 자아개념 성장에 동아리활동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아리활동경험이 자아개념(사회, 가족, 신체, 학업 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위하여, 동아리활동을 참여시점에 따라 네 집단(중학시절 참여, 고교시절 참여, 중고시절참여, 비참여)으로 나누고 집단별 성장의 차이를 다층성장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동아리활동은 사회자아개념과 학업자아개념의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제어 : 동아리활동, 자아개념, 다층성장모형

* 이 논문은 제5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장로회신학대학교 전임강사, 교신저자, animaux@naver.com

*** 연세대학교 강사, k-okdol@hanmail.net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imjeey@kedi.re.kr

I. 서 론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으며 사춘기를 경험하고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시기이다. 좌절과 갈등을 경험하는 청소년기는 정의적인 측면의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입시경쟁으로 인해 인지적 측면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학교차원에서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학생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활동이란 교사의 지시에 따르기 보다는 학생 스스로 방향 설정을 하고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이 있다.

이 시기 학생들이 교과 외 학생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usseri et al., 2006; Gilman et al., 2004).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한 학생활동은 학생들이 다양한 집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집단 활동을 통해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게 되고, 다양한 자기표현의 기회를 통해 자신의 개성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것이다. 주로 인지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정규교과활동과 달리 체험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교과 외 학생활동은 교과활동만으로는 성취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있다. 학생활동경험은 또래와의 관계형성 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자아개념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Blomfield & Barber, 2011; Feldman & Matjasko, 2005; Fredricks & Eccles, 2008; Gilman, 2001; Schaefer et al., 2011).

자아개념(self-concept)이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지각이나 느낌으로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발달해 간다(Schaffer, 2000). 청소년은 부모, 교사, 또래 등 중요한 타인의 영향을 받으며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Chubb et al., 1997). 특히 청소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보다 확대되면서 부모 이외에 또래집단이 새로운 준거집단이 되며,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능력이 발달된다(Santrock, 1986).

학생활동의 대표적인 것이 동아리이다. 동아리는 공통의 목적과 관심사에 의해 형성 운영되는 작은 모둠이라는 의미로, 동아리 활동은 취미나 소질, 가치관이나 문제 등을 공유하는 청소년에 의해 자생된 자치활동이다(김정주 외, 2003). 청소년은 동아

리활동을 통해 또래집단과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각종 전시, 발표회 등을 준비하고 경험하며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최근 청소년 동아리활동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동아리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와 동아리 활성화 방안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동아리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 자아존 중감 등 정서적 발달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조사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자신은 동아리 활동에 대 해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만족하고 있으나, 학업에의 지장, 주변의 부정적 인식 등 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성낙은, 2001; 윤현숙, 1999; 정건희, 2003; 한국청소년 진흥센터, 2008). 성낙은(2001)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교사나 부모가 자신들 의 동아리에 대해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동아리 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동아리 활동은 대인관계 능력 을 향상시키고(김성규, 2011, 김영미, 2010; 강효민, 2003; 장영화, 2001,) 긍정적인 자 아상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김성규, 2011; 문성훈, 2000; 장영화, 2001; 최동성, 2003, 허철수, 2010). 이인순(2006)은 청소년기 동아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지연(2000)은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이 비참여 집단에 비해 학문적 자아개념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일반자아개념은 의미있게 높았고, 학업, 학교, 교우, 교사태도 모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동아리 활동이 학업성취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김 정주 외, 2003; 김춘식, 2005; 신도아, 2001)도 있다. 이는 우려와는 달리 동아리활동 이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동아리 활동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동아리 활동이 청소년 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들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그 영향을 횡단연구로 검증하였고, 참여기간 및 동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아리활동의 한 영역만을 다 룬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학업성취, 가정환경, 또래관계 등 주요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아개 념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관련변수를 통제하고, 동 아리 활동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성장모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종단자료는 전국 150개 중학교의 1학년 학생 6,908명을 대상으로 5년 간 추적 조사한 자료로, 동아리활동경험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살펴볼 수 있으며, 동아리 활동을 참여시점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동아리활동의 지속성을 검증할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 자아개념이 동아리활동을 통해 어떤 양상으로 성장해 가는지를 밝힘으로써 청소년 학생활동경험으로서의 동아리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발견하고, 동아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동아리 활동경험은 청소년기 사회자아개념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둘째, 동아리 활동경험은 청소년기 가족자아개념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셋째, 동아리 활동경험은 청소년기 신체자아개념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넷째, 동아리 활동경험은 청소년기 학업자아개념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학생의 동아리활동경험이 자아개념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활용한 분석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에서 수집된 1~6차년도 자료이다. 이 자료는 2005년부터 전국 150개 중학교의 1학년 학생 6,908명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 조사하는 교육관련 패널 조사이다. 따라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1~3차년도 자료는 중학교 1~3학년 시기에 해당하며, 4~6차년도 자료는 고등학교 1~3학년 시기에 해당한다.

2. 분석변수

청소년의 학생회활동경험이 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활용한 종속변수는 자아개념(사회 자아개념, 가족 자아개념, 신체 자아개념, 학업 자아개념)이다. 사회 자아개념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친구들은 나와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 등과 같이 학생들의 사회성을 측정하는 5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구성하였다. 가족 자아개념은 ‘나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등과 같이 학생들의 가족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는 5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구성하였다. 신체 자아개념은 ‘나는 호감을 주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 ‘나는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등과 같이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5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구성하였다. 학업 자아개념은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학교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공부를 한다.’ 등과 같이 자신의 학업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5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인 청소년의 학생활동 경험 관련 변수로는 동아리활동경험 관련 변수를 활용하였다. 동아리 활동경험은 교내에서 특별활동 시간 이외의 별도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활동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동아리 활동을 의미하며, 온라인상의 커뮤니티나 온라인 게임 길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동아리 활동경험 여부를 참여 시점에 따라 4개 집단(① 비참여 집단, ② 중학교 시절에만 참여한 집단(중학시절참여), ③ 고등학교 시절에만 참여한 집단(고교시절참여), ④ 중고등학교 시절 모두 참여한 집단(중고시절참여))으로 구분한 후, 비참여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한 3개의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특성변수로 밝혀진 성별, 초등학교 6학년 사전 성취도, 사회경제적 지위(SES) 변수, 부모-자녀관계, 교우관계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여학생이 1, 남학생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사전성취도는 성취 수준을 9구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직업, 교육 수준, 소득 수준을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표준점수로 전환하여 평균한 것이다. 직업 점수는 부의 직업을 Ganzeboom의 직업 지위 점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고(Ganzeboom & Treiman, 2003),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 학력을 교육 연한으로 변환하여 평균한 값

으로 사용하였다. 소득 수준은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을 자연 로그값을 취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님은 내 기분을 이해하면서 따뜻하게 대하신다.’,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신다.’ 등 부모님이 평소에 자녀를 대하는 태도나 행동에 관해 측정한 10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구성하였다. 교우관계는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에 사이가 좋다.’,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등과 같이 학교에서의 친구관계를 측정하는 4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1>과 같다.

<표 1> 연구변인별 기술통계량 및 신뢰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Cronbach α)
자아 개념	사회	중1	6,819	3.922	.666	.838
		중2	6,470	3.912	.671	(5문항)
		중3	6,559	3.903	.656	
		고3	5,333	3.920	.649	
	가족	중1	6,814	3.952	.806	.881
		중2	6,470	3.775	.809	(5문항)
		중3	6,559	3.735	.817	
		고3	5,336	3.700	.797	
	신체	중1	6,817	2.851	.838	.836
		중2	6,467	2.871	.828	(5문항)
		중3	6,560	2.964	.828	
		고3	5,335	3.087	.759	
	학업	중1	6,815	3.279	.780	.808
		중2	6,467	3.147	.788	(5문항)
		중3	6,560	3.089	.791	
		고3	5,326	3.040	.743	
학생 특성	부모-자녀관계	중1	6,775	3.4916	.616	.889 (10문항)
	교우 관계	중1	6,789	3.682	.723	.831
		중2	6,460	3.575	.662	(4문항)
		중3	6,555	3.616	.645	
		고1	6,282	3.802	.626	
		고2	5,734	3.785	.629	
	성별(여학생)		6,908	.476	.499	여:1, 남:0
사전성취도(초6)		6,646	5.963	1.880	9간 척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6,735	.000	1.000	합성변수	

참여 시점	동아리활동참여경험	
	사례수	비율
비참여	1,727	25.1
중학시절 참여	2,502	36.3
고교시절 참여	718	10.4
중고시절 참여	1,947	28.2
전체	6,894	100.0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경험의 자아개념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2수준 다층성장모형(2-level hierarchical growth model)을 적용하였다.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경험 시점에 따른 자아개념의 성장을 추정하기 위해 적용한 성장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본 모형에서는 자아개념의 성장률의 추정하기 위해서 선형 성장률을 추정하기 위한 시간변수1과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변화되는 시기의 추가 성장률을 추정하기 위한 시간변수2를 포함하였다. 시간변수2를 추가로 포함한 이유는 청소년기의 자아개념 발달양상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만 15-16세에 해당하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성장률의 비선형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1수준(측정시점 수준) 모형

$$y_{ti} = \pi_{0i} + \pi_{1i}a_{1ti} + \pi_{2i}a_{2ti} + e_{ti} \quad e_{ti} \sim N(0, \sigma^2)$$

〈계수의 의미〉

π_{0i} : i번째 학생의 자아개념 초기값(중1)

π_{1i} : i번째 학생의 자아개념 선형 성장률

π_{2i} : i번째 학생의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되는 시기의 자아개념 추가 성장률

a_{1ti} : 시간변수1(중1=0, 중2=1, 중3=2, 고3=5로 입력)

a_{2ti} : 시간변수2(중1=0, 중2=0, 중3=0, 고3=1로 입력)

2수준(학생 수준) 모형

$$\pi_{0i} = \beta_{00} + \beta_{01} \text{성별}_{1i} + \beta_{02} \text{사전성취도}_{2i} + \beta_{03} \text{SES}_{3i} + \beta_{04} \text{부모자녀관계}_{4i} + \beta_{05} \text{교우관계}_{5i} \\ + \beta_{06} \text{동아리활동참여(중)}_{6i} + \beta_{07} \text{동아리활동참여(고)}_{7i} + \beta_{08} \text{동아리활동참여(중고)}_{8i} + r_{0i}$$

$$\pi_{1i} = \beta_{10} + \beta_{11} \text{성별}_{1i} + \beta_{12} \text{사전성취도}_{2i} + \beta_{13} \text{SES}_{3i} + \beta_{14} \text{부모자녀관계}_{4i} + \beta_{15} \text{교우관계}_{5i} \\ + \beta_{16} \text{동아리활동참여(중)}_{6i} + \beta_{17} \text{동아리활동참여(고)}_{7i} + \beta_{18} \text{동아리활동참여(중고)}_{8i} + r_{1i}$$

$$\pi_{2i} = \beta_{20} + \beta_{21} \text{성별}_{1i} + \beta_{22} \text{사전성취도}_{2i} + \beta_{23} \text{SES}_{3i} + \beta_{24} \text{부모자녀관계}_{4i} + \beta_{25} \text{교우관계}_{5i} \\ + \beta_{26} \text{동아리활동참여(중)}_{6i} + \beta_{27} \text{동아리활동참여(고)}_{7i} + \beta_{28} \text{동아리활동참여(중고)}_{8i} + r_{2i}$$

$$r_i \sim N(0, T)$$

〈계수의 의미〉

β_{00} : 전체 학생의 자아개념 초기값(중1) 평균

$\beta_{01} \sim \beta_{08}$: 전체 학생의 자아개념 초기값(중1)에 대한 학생특성의 영향력 및 동아리활동참여 여부에 따른(비참여 집단과 시점별 참여집단간) 차이

β_{10} : 전체 학생의 자아개념 선형 성장률 평균

$\beta_{11} \sim \beta_{18}$: 전체 학생의 자아개념 선형 성장률에 대한 학생특성의 영향력 및 동아리활동참여 여부에 따른(비참여집단과 시점별 참여집단간) 차이

β_{20} : 전체 학생의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되는 시기 자아개념 추가 성장률 평균

$\beta_{21} \sim \beta_{28}$: 전체 학생의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되는 시기 자아개념 추가 성장률에 대한 학생특성의 영향력 및 동아리활동참여 여부에 따른(비참여집단과 시점별 참여집단간) 차이

III. 연구결과

〈표 2〉는 동아리활동 참여 집단(비참여, 중학시절 참여, 고교시절 참여, 중고시절 참여)에 따른 학년별(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자

아개념의 기술통계량으로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볼 때,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중학, 고교, 중고)들이 비참여 집단에 비해 모든 시점에 걸쳐 높은 자아개념(사회, 가족, 신체, 학업)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 학업 자아개념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신체 자아개념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자아개념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사회 자아개념은 학년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2> 동아리활동 참여 시점에 따른 자아개념의 기술통계량

자아개념	참여 시점	중1			중2			중3			고3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회	비참여	1,702	3.84	.69	1593	3.82	.68	1,613	3.83	.66	1,313	3.82	.66
	중학시절참여	2,476	3.93	.66	2353	3.92	.65	2,366	3.89	.65	1,829	3.90	.64
	고교시절참여	704	3.90	.64	660	3.85	.68	677	3.85	.68	598	3.92	.65
	중고시절참여	1,937	3.99	.65	1864	4.00	.66	1,903	4.00	.63	1,593	4.02	.64
	전 체	6,819	3.92	.67	6470	3.91	.67	6,559	3.90	.66	5,333	3.92	.65
가족	비참여	1,699	3.91	.82	1593	3.72	.80	1,612	3.71	.81	1,314	3.65	.82
	중학시절참여	2,475	3.96	.80	2353	3.79	.81	2,367	3.72	.83	1,830	3.70	.77
	고교시절참여	704	3.92	.79	660	3.73	.78	678	3.70	.81	600	3.69	.76
	중고시절참여	1,936	3.99	.80	1864	3.82	.82	1,902	3.78	.80	1,592	3.75	.81
	전 체	6,814	3.95	.81	6470	3.77	.81	6,559	3.74	.82	5,336	3.70	.80
신체	비참여	1,701	2.76	.82	1593	2.80	.81	1,612	2.88	.80	1,314	2.98	.75
	중학시절참여	2,475	2.86	.84	2352	2.87	.83	2,367	2.96	.83	1,830	3.09	.74
	고교시절참여	705	2.74	.81	660	2.75	.81	678	2.86	.81	599	3.06	.75
	중고시절참여	1,936	2.96	.85	1862	2.97	.83	1,903	3.08	.84	1,592	3.18	.78
	전 체	6,817	2.85	.84	6467	2.87	.83	6,560	2.96	.83	5,335	3.09	.76
학업	비참여	1,701	3.16	.78	1593	3.02	.77	1,613	2.95	.78	1,312	2.93	.72
	중학시절참여	2,472	3.29	.77	2351	3.15	.77	2,367	3.08	.79	1,827	3.03	.73
	고교시절참여	705	3.23	.75	660	3.11	.76	677	3.05	.76	597	3.05	.74
	중고시절참여	1,937	3.39	.79	1863	3.27	.81	1,903	3.23	.78	1,590	3.14	.77
	전 체	6,815	3.28	.78	6467	3.15	.79	6,560	3.09	.79	5,326	3.04	.74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경험이 자아개념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동아리활동경험이 사회자아개념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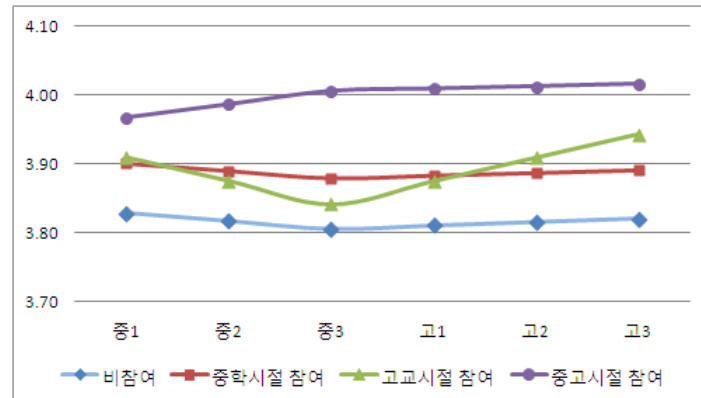
〈표 3〉은 성장모형식을 통하여 동아리활동 참여 경험이 사회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학생들의 사회자아개념은 측정시점과 학생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사회자아개념에 대한 무선효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수준(측정시점)의 분산은 .198(표준편차 .445)이며, 2수준(학생)의 초기값(중1) 분산은 .144(표준편차 .379), 선형성장률 분산은 .017(표준편차 .130), 추가성장률 분산은 .263(표준편차 .513)으로서, 초기값과 선형성장률 및 추가성장률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인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통제변인으로 선정된 학생개인특성인 성별, 사전성취도,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관계, 교우관계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사회자아개념을 보인다. 이는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사회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동아리활동을 중학교 시기동안 계속 참여한 중고 시절참여 집단이 동아리활동 비참여집단에 비해 사회자아개념(계수=.030, $p<.05$)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선형성장률을 보였으며, 효과크기로는 .231 표준편차(.030÷.130) 만큼 더 높은 선형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측정시점에 따른 사회 자아개념 추가 성장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고교시절참여 집단이 더 큰 성장을 하였다(계수=.156, $p<.05$). 이는 동아리활동 비참여집단에 비하여 고교시절참여 집단이 .304 표준편차(.156÷.513) 만큼 추가성장을 보인 것으로서 실제적인 규모의 추가성장률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3> 동아리활동 참여 경험이 사회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초기값(중1)		
초기값(중1) 평균	3.921 ***	(.006)
성별(여학생)	.028 *	(.013)
사전성취도(초6)	.016 ***	(.004)
SES	.021 **	(.007)
부모-자녀 관계	.040 ***	(.011)
교우관계	.301 ***	(.011)
동아리활동 참여(중)	.073 ***	(.017)
동아리활동 참여(고)	.082 ***	(.023)
동아리활동 참여(중고)	.139 ***	(.017)
선형 성장률		
선형 성장률 평균	-.011 *	(.004)
성별(여학생)	.008	(.009)
사전성취도(초6)	-.013 ***	(.003)
SES	-.005	(.005)
부모-자녀 관계	.012	(.008)
교우관계	-.087 ***	(.007)
동아리활동참여(중)	.000	(.011)
동아리활동참여(고)	-.023	(.017)
동아리활동참여(중고)	.030 *	(.012)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되는 시기 성장률		
추가 성장률 평균	.048 *	(.019)
성별(여학생)	-.123 ***	(.038)
사전성취도(초6)	.041 ***	(.011)
SES	.030	(.020)
부모-자녀 관계	-.035	(.034)
교우관계	.261 ***	(.030)
동아리활동 참여(중)	-.002	(.049)
동아리활동 참여(고)	.156 *	(.071)
동아리활동 참여(중고)	-.094	(.050)
무선효과	분산	표준편차
2수준 분산		
초기값(중1)	.144 ***	(.379)
선형 성장률	.017 ***	(.132)
추가성장률	.263 ***	(.513)
1수준 분산	.198	(.445)

* p<.05, ** p<.01, *** p<.001

다음의 [그림 1]은 <표 3>의 다층성장모형을 통하여 통제변수인 학생 특성의 영향을 통제한 후 추정한 동아리활동 참여 시점에 따른 사회자아개념 성장곡선이다.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비참여	3.83	3.82	3.81	...	...	3.82
중학시절참여	3.90	3.89	3.88	...	...	3.89
고교시절참여	3.91	3.88	3.84	...	...	3.94
중고시절참여	3.97	3.99	4.01	...	...	4.02

[그림 1] 동아리활동 참여시점에 따른 사회자아개념 성장곡선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중학, 고교, 중고)들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모든 시점에 걸쳐 높은 사회자아개념을 보여준다. 이는 동아리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사회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자아개념의 경우, 중고교시절 계속 동아리 활동을 참여했던 집단의 사회 자아개념이 측정시점 전반에 걸쳐 점차 상승하는 성장곡선을 보여준다. 또한 고교시절 참여 집단의 경우 중학시절에는 하락곡선을 그리다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사회 자아개념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에 참여한 동아리 활동이 사회 자아개념의 성장에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동아리활동경험이 가족자아개념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표 4〉는 성장모형식을 통하여 동아리활동 참여 경험의 가족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가족자아개념에 대한 무선희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수준(측정 시점)의 분산은 .286(표준편차 .535)이며, 2수준(학생)의 초기값(중1) 분산은 .174(표준편차 .417), 선형성장률 분산은 .032(표준편차 .179), 추가성장률 분산은 .511(표준편차 .715)으로서, 초기값과 선형성장률 및 추가성장률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인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통제변인으로 선정된 학생개인특성인 성별, 사전성취도,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관계, 교우관계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자아개념을 보인다. 이는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자아개념의 경우, 동아리활동참여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별 성장률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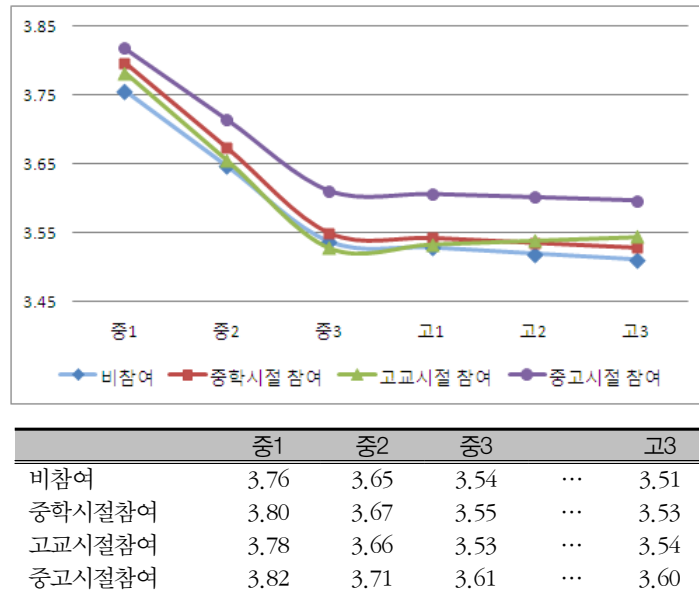
〈표 4〉 동아리활동 참여 경험의 가족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초기값(중1)		
초기값(중1) 평균	3.811 ***	(.007)
성별(여학생)	-.083 ***	(.015)
사전성취도(초6)	.013 **	(.004)
SES	.029 ***	(.008)
부모-자녀 관계	.492 ***	(.013)
교우관계	.135 ***	(.012)
동아리활동 참여(중)	.041 *	(.019)
동아리활동 참여(고)	.026	(.026)
동아리활동 참여(중고)	.062 **	(.020)
선형 성장률		
선형 성장률 평균	-.110 ***	(.005)
성별(여학생)	.049 ***	(.011)
사전성취도(초6)	-.003	(.003)
SES	.002	(.006)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부모-자녀 관계	-.124 ***	(.009)
교우관계	-.043 ***	(.008)
동아리활동 참여(중)	-.014	(.014)
동아리활동 참여(고)	-.017	(.019)
동아리활동 참여(중고)	.006	(.015)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되는 시기 성장률		
추가 성장률 평균	.303 ***	(.023)
성별(여학생)	-.145 **	(.046)
사전성취도(초6)	.015	(.013)
SES	.008	(.024)
부모-자녀 관계	.295 ***	(.041)
교우관계	.143 ***	(.035)
동아리활동 참여(중)	.047	(.059)
동아리활동 참여(고)	.093	(.083)
동아리활동 참여(중고)	-.007	(.063)
무선효과	분산	표준편차
2수준 분산		
초기값(중1)	.174 ***	(.417)
선형 성장률	.032 ***	(.179)
추가성장률	.511 ***	(.715)
1수준 분산	.286	(.534)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의 [그림 2]은 <표 4>의 다층성장모형을 통하여 통제변수인 학생 특성의 영향을 통제한 후 추정한 동아리활동 참여 시점에 따른 가족자아개념 성장곡선이다.



[그림 2] 동아리활동 참여시점에 따른 가족자아개념 성장곡선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중학, 고교, 중고)들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거의 모든 시점에 걸쳐 높은 자아개념 가족 자아개념을 보여준다. 이는 동아리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가족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 자아개념의 경우, 모든 집단의 가족 자아개념이 측정시점 전반에 걸쳐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특히 중학교 시절에는 그 하락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이는 사춘기의 가족자아개념이 낮아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아리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집단별 성장곡선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3. 동아리활동경험이 신체자아개념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표 5〉는 성장모형식을 통하여 동아리활동 참여 경험의 신체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신체자아개념에 대한 무선효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수준(측정시점)의 분산은 .269(표준편차 .519)이며, 2수준(학생)의 초기값(중1) 분산은 .260(표준편차 .510), 선형성장률 분산은 .038(표준편차 .195), 추가성장률 분산은 .428(표준편차 .510)이다.

차 .654)으로서, 초기값과 선형성장률 및 추가성장률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인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통제변인으로 선정된 학생개인특성인 성별, 사전성취도,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관계, 교우관계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자아개념을 보인다. 이는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신체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신체자아개념의 경우, 동아리활동참여 여부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별 성장률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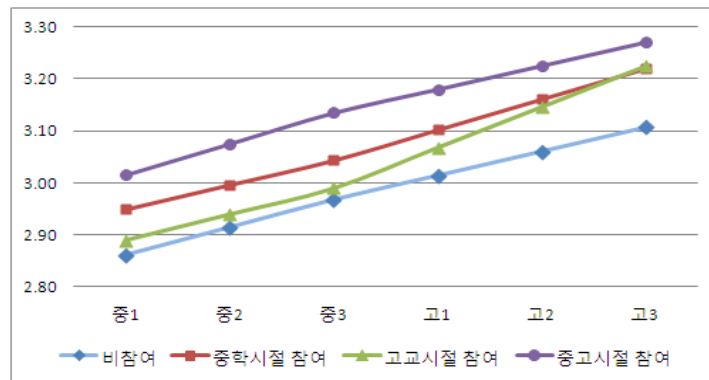
<표 5> 동아리활동 참여 경험이 신체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초기값(중1)		
초기값(중1) 평균	2.958 ***	(.008)
성별(여학생)	-.299 ***	(.016)
사전성취도(초6)	.028 ***	(.005)
SES	.015	(.009)
부모-자녀 관계	.125 ***	(.014)
교우관계	.163 ***	(.013)
동아리활동참여(중)	.089 ***	(.021)
동아리활동참여(고)	.028	(.029)
동아리활동참여(중고)	.154 ***	(.022)
선형 성장률		
선형 성장률 평균	.053 ***	(.005)
성별(여학생)	-.003	(.011)
사전성취도(초6)	-.007 *	(.003)
SES	.006	(.005)
부모-자녀 관계	-.029 **	(.009)
교우관계	-.033 ***	(.009)
동아리활동 참여(중)	-.007	(.014)
동아리활동 참여(고)	-.003	(.019)
동아리활동 참여(중고)	.006	(.014)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되는 시기 성장률		
추가 성장률 평균	-.021	(.022)
성별(여학생)	.022	(.044)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사전성취도(초6)	.018	(.013)
SES	-.015	(.023)
부모-자녀 관계	.116 **	(.039)
교우관계	.094 **	(.035)
동아리활동 참여(중)	.056	(.058)
동아리활동 참여(고)	.106	(.080)
동아리활동 참여(중고)	-.023	(.060)
무선흐과	분산	표준편차
2수준 분산		
초기값(중1)	.260 ***	(.510)
선형 성장률	.038 ***	(.196)
추가성장률	.428 ***	(.654)
1수준 분산	.269	(.519)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의 [그림 3]은 <표 5>의 다층성장모형을 통하여 통제변수인 학생 특성의 영향을 통제한 후 추정한 동아리활동 참여 시점에 따른 신체 자아개념 성장곡선이다.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비참여	2.86	2.91	2.97	...	...	3.11
중학시절참여	2.95	3.00	3.04	...	...	3.22
고교시절참여	2.89	2.94	2.99	...	...	3.22
중고시절참여	3.02	3.08	3.14	...	...	3.27

[그림 3] 동아리활동 참여시점에 따른 신체자아개념 성장곡선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중학, 고교, 중고)들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모든 시점에 걸쳐 높은 신체 자아개념을 보여준다. 이는 동아리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신체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체 자아개념의 경우, 다른 자아개념과는 달리 모든 집단이 측정시점 전반에 걸쳐 상승하는 성장곡선을 보여준다. 이는 청소년기 초기에 가장 낮은 신체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청소년기 후기로 가면서 점차 신체적 자아개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아리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집단별 성장곡선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4. 동아리활동경험이 학업자아개념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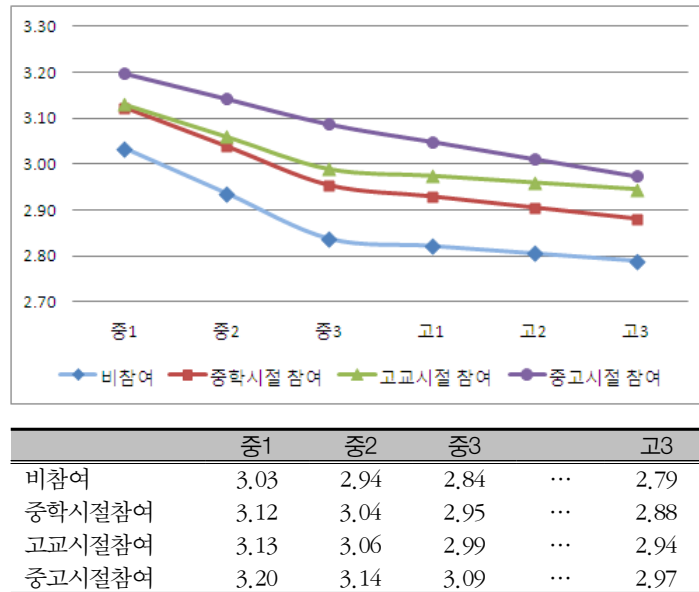
〈표 6〉은 성장모형식을 통하여 동아리활동 참여 경험이 학업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학업자아개념에 대한 무선효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수준(측정시점)의 분산은 .272(표준편차 .522)이며, 2수준(학생)의 초기값(중1) 분산은 .182(표준편차 .427), 선형성장률 분산은 .031(표준편차 .176), 추가성장률 분산은 .554(표준편차 .744)으로서, 초기값과 선형성장률 및 추가성장률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인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통제변인으로 선정된 학생개인특성인 성별, 사전성취도,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관계, 교우관계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학업자아개념을 보인다. 이는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학업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동아리활동을 중고교 시기동안 계속 참여한 중고시절참여 집단이 동아리활동 비참여집단에 비해 학업 자아개념(계수 = .043, $p < .01$)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선형성장률을 보였으며, 효과크기로는 .244 표준편차(.043 ÷ .176) 만큼 더 높은 선형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측정시점에 따른 학업 자아개념 추가 성장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동아리활동을 중고시절 계속 참여한 집단의 경우,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학업 자아개념 성장률이 감소하였으며(계수 = -.195 $p < .01$), 효과크기로는 -.262 표준편차(-.195 ÷ .744) 만큼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고교시절의 동아리활동이 학업자아개념의 성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중학교 시절에 비해 고등학교 시기에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표 6> 동아리활동 참여 경험이 학업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초기값(중1)		
초기값(중1) 평균	3.152 ***	(.007)
성별(여학생)	-.028	(.014)
사전성취도(초6)	.073 ***	(.004)
SES	.041 ***	(.008)
부모-자녀 관계	.153 ***	(.013)
교우관계	.185 ***	(.012)
동아활동 참여(중)	.088 ***	(.019)
동아리활동 참여(고)	.097 ***	(.026)
동아리활동 참여(중고)	.163 ***	(.020)
선형 성장률		
선형 성장률 평균	-.099 ***	(.005)
성별(여학생)	.021 *	(.010)
사전성취도(초6)	-.010 ***	(.003)
SES	.001	(.006)
부모-자녀 관계	-.027 **	(.009)
교우관계	-.085 ***	(.008)
동아리활동참여(중)	.014	(.014)
동아리활동참여(고)	.027	(.019)
동아리활동참여(중고)	.043 **	(.014)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되는 시기 성장률		
추가 성장률 평균	.247 ***	(.023)
성별(여학생)	-.056	(.046)
사전성취도(초6)	.014	(.013)
SES	-.048	(.025)
부모-자녀 관계	.091 *	(.040)
교우관계	.236 ***	(.037)
동아리활동 참여(중)	-.066	(.059)
동아리활동 참여(고)	-.078	(.081)
동아리활동 참여(중고)	-.195 **	(.063)
무선효과	분산	표준편차
2수준 분산		
초기값(중1)	.182 ***	(.427)
선형 성장률	.031 ***	(.176)
추가성장률	.554 ***	(.744)
1수준 분산	.272	(.522)

* p<.05, ** p<.01, *** p<.001

다음의 [그림 4]는 <표 6>의 다층성장모형을 통하여 통제변수인 학생 특성의 영향을 통제한 후 추정한 동아리활동 참여 시점에 따른 자아개념 성장곡선이다.



[그림 4] 동아리활동 참여시점에 따른 학업자아개념 성장곡선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중학, 고교, 중고)들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모든 시점에 걸쳐 높은 학업자아개념을 보여준다. 이는 동아리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학업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업 자아개념의 경우, 모든 집단이 측정시점 전반에 걸쳐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청소년기 학업 자아개념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고교시절에 계속 동아리 활동을 하는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완만한 하락을 보여준다. 이는 중고교시절에 참여한 동아리 활동이 학업 자아개념의 성장에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런데 여전히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학업 자아개념을 보여주긴 하지만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이는 중고교시절의 동아리활동이 학업 자아개념 성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중학교 시절에 비해 고등학교 시기에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층성장모형을 통해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환경의 하나로 학교에서의 학생활동경험을 주목하고, 청소년기 자아개념이 어떤 양상으로 동아리활동을 통해 성장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동아리활동경험은 청소년기 자아개념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동아리활동은 청소년기 사회자아개념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결과, 중고시절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사회자아개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지속적으로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동아리활동의 효과성에 참여빈도 및 기간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방형심, 2006; 안종미, 2004; 조영미, 2002) 결과와 일치한다. 고교시절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집단의 경우도 고등학교 이후 시점에 유의미한 추가성장률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동아리활동이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김성류, 2011; 김정주 외, 2003; 강효민, 2003; 장영화, 2001)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김성규, 2011; 문성훈, 2000; 장영화, 2001; 최동성, 2003; 허철수, 2010)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동아리활동은 청소년기 가족자아개념 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동아리활동은 청소년기 신체자아개념 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넷째, 동아리활동은 청소년기 학업자아개념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결과, 중고시절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학업자아개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동아리활동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김성규, 2011; 문성훈, 2000; 장영화, 2001; 최동성, 2003; 허철수, 2010)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동아리활동이 학업자아개념을 제외한 일반자아개념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김지연(2000)의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만 일치한다. 다만, 중고시절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의 경우, 동아리활동이 학업자아개념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중학시절에 비해 고교시절의 추가성장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교육여건상 고등학교 시절에 많은 시험과 불안,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

다. 청소년의 동아리활동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조사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자신은 동아리활동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만족하고 있으나, 시간부족, 학업에의 지장, 주변의 부정적 인식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성낙은, 2001; 신경애, 2003; 윤현숙, 1999; 정건희, 2003; 한국청소년진흥센터, 2008). 또한 청소년은 교사나 부모가 자신의 동아리에 대해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성낙은, 2001). 그러나 지속적인 학생활동경험이 사회자아개념 뿐 아니라 학업자아개념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학생활동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학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아리활동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정주 외, 2003; 김춘식, 2005; 신도아, 2001)결과도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동아리활동은 교사주도의 교과활동과는 달리 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의 노력으로 동아리 운영, 발표, 전시 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또래와의 활동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키우며, 사회적 관계를 배워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 학업 자아개념 영역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다층성장모형을 통해 학생활동경험이 자아개념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힘으로써 동아리활동의 교육적 의의를 발견하였고,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개념의 변화에 대한 예측은 많았으나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국내 연구실정에서,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어떤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한 본 연구결과는 자아개념 변화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그림을 제공한데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양상을 살펴보는데 있어 아동기와 성인기의 정보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발달단계에 따라 자아개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추후 본 연구대상의 성인기 시점에서 자아개념의 안정성 여부를 점검해 보고, 동아리활동이 청소년기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속성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 학생활동경험

을 동아리활동으로 국한하였다. 학생활동에는 학생회활동, 자원봉사, 특별활동 등 더 많은 활동영역들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또 다른 학생활동 경험의 교육적 의의를 밝히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동아리활동을 단순한 참여유무가 아닌 참여시점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여 비교적 그 영향을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동아리활동의 효과성 측정에 있어 동아리의 유형 및 참여 동기 등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강효민, 2003; 김정주 외, 2003). 따라서 동아리 유형 및 참여 동기, 조직 내의 역할과 직책 등에 따른 자아개념발달의 차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참여시점에 따른 자아개념의 성장을 분석한 결과, 동아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아개념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이 밝혀졌다. 따라서 청소년이 동아리 활동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고려하고, 동아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학교 및 사회적 여건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하겠다. 넷째, 자아개념 뿐 아니라 학교적응, 대인관계, 학업성취 등에 동아리활동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종속변인을 다양화하여 연구한다면 동아리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효민(2003). 고교생의 교내 동아리 여가활동과 사회적 적응 및 학교공동체의식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42권 제2호, pp. 223-236.
- 김기정 역(1995). 자아의 발달. 서울: 문음사.
- 김성규(2011). 동아리활동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운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주 · 김용대 · 성기원(2003).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지연(2000). 청소년기 동아리 활동에 따른 정의적 행동특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춘식(2003). 남자중학생의 동아리 활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성훈(2000). 자원봉사동아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형심(2006). 청소년이 지각하는 청소년 동아리활동 활성화요인.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낙은(2001). 고등학생 동아리활동 실태와 교육요구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애(2003). 청소년 시설의 동아리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도아(2001). 고등학교 영어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의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영 · 김누리(2004). 청소년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탐색.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al*, Vol. 13 No. 2, pp. 185-199.
- 안종미(2004). 중학생의 동아리활동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현숙(1999). 서울지역 청소년의 여가활동 실태조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정(2010). 초기 청소년의 인터넷 일탈행위와 부정적 자아개념에 관한 중단연구: 잠재성장모형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 pp. 165-187.
- 이인순(2007). 청소년동아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여성문화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화(2001).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이 인성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건희(2003). 학교내외의 청소년 동아리활동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미(2002). 지역중심 청소년 동아리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동성(2003). 청소년 동아리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진흥센터(2008). 청소년활동 욕구 및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황 산(2001). 사회복지관의 청소년 동아리활동에 관한 연구: 부천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철수·강옥련(2010). 동아리활동 참여 청소년과 미참여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제12권 제3호, pp. 25-46.
- Balwin, S. A., & Hoffmann, J. P.(2002). The Dynamics of Self-esteem: A Growth-Curve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1, pp. 101-113.
- Block, J., & Robins, R. W.(1993). A longitudinal study of consistency and change in self-esteem from early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Child Development*, Vol. 64, pp. 909-923.
- Blomfield, C. J., & Barber, B. L.(2011). Developmental experiences dur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Australian adolescents' self-concept: particularly important for youth from disadvantaged schoo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40, pp. 582-594.
- Feldman, A. F., & Matjasko, J. L.(2005). The role of school-based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adolescent development: A comprehensive review and future direc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75, pp. 159-210.

- Fredricks, J. A., & Eccles, J. S.(2008).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the middle school years: Are there developmental benefits for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7, pp. 1029-1043.
- Gilman, R.(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social interest, and frequency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among adolescent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0 No. 6, pp. 749-767.
- Gumora, G., & Arsenio, W. F.(2002). Emotionality, emotion regulation, and school performance in middle school childr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40 No. 5, pp. 395-413.
- Harter, S.(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the self-system,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Wiley.
- Harter, S.(1989). Cause, correlate, and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 worth: A life-span perspective. In J. Kolligan & Sternberg(Eds.), *Perception and incompetence across the life-spa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attie, J. A.(1992). *Self- concept*. Hillsdale, NJ: Erlbaum.
- Marsh, H. W.(1990). A multidimensional, hierarchical model of self-concept: Theoretical and empirical justificatio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Vol. 2, pp. 77-172.
- Santrock, J. W. (1986). *Life-span development*. LA: Brown Publisher.
- Schaefer, D. R., Simpkins, S. D., Vest, A. E. & Price, C. D.(2011). The contribution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to adolescent friendship: new insight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47 No. 4, pp. 1141-1152.
- Shaffer, D. R.(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Belmont, CA, USA: Wadworth/Thomson Learning.

ABSTRACT

The Effects of Adolescents' Experience of Club Activities on Their Self-concept

Song, Soo-Ji* · Kim, Jung-Min** · Namgung, Jee-Y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dolescents' experience of club activities on their self-concept, using data from the 1st-6th years taken from the 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undertaken by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he studen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earlier-participating, later-participating, participating, and non participating groups) according to whether they had experienced club activities. Multi-level analysis using the growth model was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adolescents' experience of club activities on their self-concept.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self-concept of the participating group grew higher than that of the non participating groups. Club-activities positively impacted upon adolescents' social self-concept and academic self-concep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dolescents' experience of school activities may have a positively effect upon the growth of their self-concept.

Key Words : club-activity, self-concept, multi level models

투고일 : 12월 11일, 심사일 : 1월 18일, 심사완료일 : 2월 16일

*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 Yonsei University

***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